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비판적 견해에 대한 고찰

- 담론의 내재적 체계를 중심으로 -

김영민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Criticism of Landscape Urbanism - Focused on Internal Structures of the Discourse -

Kim, Youngmi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As the influence of Landscape Urbanism has grown, various criticisms on the discourse also have increased. A study on critical opinions of Landscape Urbanism is necessary to fully comprehend the theoretical structure of the discourse and its limitations. This study introduced the concept of Intension and Extension, which is used in the field of Logics and Semiotic, as an analytical tool to interpret various criticisms based on different views in a more objective and synthetic way. After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criticisms of Landscape Urbanism, 30 texts with important critiques on the theory were selected and analyzed. Criticisms can be classified as internal criticism and external criticism according to specific topics they are engaged with. The study only covers internal criticism as a research scope.

The internal criticisms on Landscape Urbanism are re-categorized into topics of theory, practice and the relation between theory and practice. Vagueness of concepts and error in concepts are two types criticism related to the issue of theory. Lexical Ambiguity and Intensional Vagueness are the main causes of conceptual vagueness in Landscape Urbanism. Conceptual vagueness related with the problem of redefining an existing concept through expanding its meaning reveals a structural dilemma. There are three types of criticism included in the topic of practice: absence of practical results, form-oriented practice, and ambiguous identity in practical results. Ambiguous identity is caused by Extensional Vagueness allowing borderline cases. Because these borderline cases overlap with extensions of landscape architecture, it is hard to differentiate projects of Landscape Urbanism and those of conven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Most criticisms on the relation between theory and practice raise the question on the practical method. Two types of criticism are engaged with the topic of the practical method: errors in practical methods and absence of practical methods. The absence of practical methods is a fundamental problem of Landscape Urbanism which is hard to solve by the proposed solutions. However, these structural problems are not only the weak point but also the factor that is able to prove the potentials expand the scope of Landscape Urbanism. In addition to the results of the study, internal criticisms on Landscape Urbanism should be examined in the following studies in order to predict the next direction of Landscape Urbanism.

Key Words: New Urbanism, Practical Theory, Internal Criticism, Intension and Extension

Corresponding author: Youngmin Kim,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Seoul 130-743, Korea. Tel.: +82-2-6490-2847, E-mail: ymkim@uos.ac.kr

국문초록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이 이론 성과만큼 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도 함께 제기되어왔다. 오늘날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구도와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기된 비판적 견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각각의 관점에 따라 제기되어온 여러 비판적 견해를 분석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해석의 틀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논리학과 기호학에서 사용되는 내포와 외연의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의 전개과정을 비판적 견해를 중심으로 통시적으로 재구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30여 편의 비판적 견해가 담긴 문헌을 선정하여 분석한다. 비판적 견해의 성격에 따라 내재적 비판과 외재적 비판으로 구분하고 이중 내재적 비판에 해당되는 견해들만을 본 연구의 주제로 다룬다.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내재적 비판은 이론, 실천, 그리고 이론과 실천과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론적 내용에 대한 비판은 개념의 모호함과 개념의 모순을 지적하는 비판들로 나누어진다. 이중 개념의 모호함은 사전적 애매함과 내포적 모호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기존의 개념을 확장적으로 재해석하면서 발생한 개념의 모호함의 문제는 담론의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실천에 대한 비판의 경우 실천적 결과의 부재, 형태중심적 실천, 기존 조경과의 실천적 차별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중 실천적 결과의 차별성 부재는 다수의 경계사례를 허용하는 외연적 모호함으로 인해 나타나는데, 경계사례들이 기존 조경의 외연이나 경계사례와 중복이 되면서 담론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실천적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한 비판들은 실천적 방법의 오류와 실천적 방법의 부재를 지적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실천적 방법의 부재는 그동안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이 제시한 해답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이론의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된다. 담론의 구조적인 문제들은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이론적인 영역을 확장하고 잠재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향후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비판뿐만 아니라 외재적 비판에 대한 고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뉴 어바니즘, 실천적 이론, 내재적 비판, 내포와 외연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표

1990년대 말 등장한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은 전통적 조경의 틀에서 벗어나 경관을 매체로 도시 전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의도적으로 영역적 경계를 흐리며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접근을 추구하는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은 조경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도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던 건축과 계획의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된다. 하지만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호의적이며 긍정적인 견해만이 지배적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점차 이론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커졌다. 특히, 최근 들어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이 북미의 영향력이 있는 도시설계의 이론인 뉴 어바니즘(New Urbanism)에 대한 비판적 이론으로 인정받자, 오히려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은 그 철학과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¹⁾.

왈드하임이 장년기에 접어들었다고 표현한 오늘날의 랜즈

케이프 어바니즘은 더 이상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담론으로 머물 수만은 없다(Waldheim, 2010:21). 담론이 등장한지 근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은 이론적, 실천적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밝혀야 할 위치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비판적 견해에 대한 학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해 제기된 비판적 견해들은 이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만큼이나 다양한 관점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진행하려면 제각각의 기준과 관점에 따라 이루어진 비판적 견해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해석의 틀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담론의 구조를 해부할 수 있는 논리적인 분석의 기준을 마련하여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체계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이론적 개념과 실천, 그리고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판적 견해를 검토하고,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동향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보여준다. 첫째, 이론적 내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있다. 배정환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배경과 핵심적 주장을 국내에 소개하였고, 이후 김민경, 그리고 강효정과 최재필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전반적인 이론적 구도를 분석하였다(Pae, 2004; Kim, 2009; Kang and Choi, 2011). 조세환의 경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내용을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바가 있다(Cho, 2010). 국외에서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장과 비판적 견해를 정리한 톰슨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Thompson, 2012). 둘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실천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들이 있다. 김아연, 고미진, 오형석과 강연주, 김정화, 배정환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분석의 틀로 삼아 국내의 공모전을 분석한다(Kim *et al.*, 2006; Kang *et al.*, 2008).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영미와 유우상은 건축 프로젝트의 설계 전략을, 윤희연은 하이라인 프로젝트의 도시적 효과를, 강효정은 국내의 공공 프로젝트들을, 김영민은 국외의 도시설계의 사례를 분석한 실천적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Lee and Yoo, 2010; Yoon, 2010; Kang, 2013; Kim, 2014). 또한 김영민과 정옥주는 실천적 측면을 위주로 이론의 전개 과정을 고찰한 바가 있다(Kim and Jeong, 2014). 국외의 경우, 도날두가 유럽의 이전적지와 관련된 실천을, 새년과 마나와두가 스리랑카의 실천적 사례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연관하여 연구한 바가 있으며, 웰러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교외지역 계획을 위한 효과적인 개념적 틀로 도입하고자 한다(Donaldieu, 2006; Shannon and Manawadu, 2007; Weller, 2008).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내부의 이론적 내용과 실천의 사례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어 왔다. 외부로 이론을 확장하는 연구라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아 대상을 담론 내로 포섭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수용적인 입장을 전제하기 때문에 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상대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비판적 측면을 함께 다룬 연구들이 일부 나타나지만, 이 경우에도 대부분 비판적 견해는 담론의 탐색에 있어 추가적으로 고려할 의견으로서만 간주된다. 선행 연구들의 또 다른 한계점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내용과 실천적 결과가 형성하는 관계의 구도를 충분히 고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선행 연구들이 담론의 내적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분석적 틀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는 데 기인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경향에서 벗어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담론 외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안하여 담론의 체계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판적 관점을 중심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과 실천의 구도를 고찰하여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현주소를 점검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의의를 갖는다.

3. 연구 범위와 구성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내재적 비판과 외재적 비판으로 나뉜다²⁾. 내재적인 비판은 개념, 방향, 논리 등 담론의 이론적 내용에 해당하는 내적 요인들과 체계에 대한 비판을 의미한다. 반면, 외재적인 비판은 담론의 내적 요인들이 외적인 조건들과 관계를 맺으며 야기한 효과에 대한 비판을 지칭한다. 외재적 비판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담론의 내적인 문제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재적인 비판을 이후의 연구에서 다룰 주제로 보고 내재적인 비판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비판적 견해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련 텍스트들 중에서 30편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헌에는 외부적인 비판적 견해뿐 아니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내에서 스스로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텍스트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본인이 텍스트를 남기지 않았더라도 다른 문헌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소개된 비판적 견해도 논의에 포함된다.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와 문헌을 검토하여 그 동안 선행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비판적 견해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담론의 전개 양상을 비판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3장은 2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비판적 견해를 유형화하여 분석한다. 비판적 견해들을 통시적으로 분석한 2장과는 달리 3장은 비판적 견해들을 통해 드러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체계에 대한 모순과 한계를 공식적으로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의 형식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논리학과 기호학에서 사용되는 내포(內包)와 외연(外延)의 개념을 틀로 삼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1절에서는 이론적 개념의 문제를 중심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이론적 영역에서 보여준 개념적 모호함의 문제를 다루며, 2절에서는 실천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영역의 문제를 검토한다. 3절은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실천적 방법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4장의 결론에서는 앞서 이루어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비판적 고찰을 통해 파악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한계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연구의 과제와 본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4. 분석의 방법

건축과 조경의 이론에서 기호학과 언어학에 근거하여 작품을 분석하거나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은 새로운 경향은

아니다. 이미 60년대부터 노버그-슐츠, 에코, 베어드, 젠크스와 같은 건축 이론가들은 구조주의 기호학 이론들을 건축 이론에 도입하고자 하였으며(Norberg-Schulz, 1963; Baird and Jencks, 1966; Eco, 1973), 벤츄리(Robert Venturi), 아이젠만(Peter Eisenman), 마이어(Richard Meier)의 1970년대 건축 작업 역시 기호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조정경에서도 코너, 포테이거와 프린튼, 마이어는 기호학적 분석 방식을 사용하여 이론적 내용을 전개한 바가 있다(Corner, 1991; Meyer, 1997; Potteiger and Purinton, 1998).

본 연구에서 분석의 개념적 틀로 사용하는 내포와 외연은 개념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널리 사용하는 기호학과 논리학의 개념이다. 겔드셋처는 개념론(概念論)을 정립하면서 개념은 의미론적 단일체가 아니며 논리적으로 분리되는 내포와 외연 서로 맞물려 있는 하나의 구조를 이루면서 형성된다고 설명한다(Gledsetzer, 1987:106). 외연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사물이나 개체들을 의미한다. 개념의 외연은 그 개념이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의 집합이 된다(Salmon, 1982:300). 반면, 내포는 개념이 어떤 대상에 적용되기 위해 대상이 갖추어야 할 특징들을 말한다. 개념의 내포는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들을 결정하는 의미론적 속성들의 집합이 된다(Salmon, 1982:301).

본 연구는 카니와 쉬어가 내포와 외연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구성된 개념의 세 가지 모델에 근거하여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구조를 분석한다(Carney and Scheer, 1980). 첫 번째 모델의 구조는 Figure 1과 같다. W라는 개념이 존재할 때, 대상 A₁, A₂, A₃, A₄, A₅는 개념 W의 외연에 해당하며 의미론적 속성 F는 개념 W의 내포에 해당된다. Figure 1은 개념 W가 외연을 규정하는 유일한 기준인 F만으로 구성된 내포를 갖는 경우의 구조를 보여준다. Figure 2는 두 번째 모델을 보여주는 도식이다. 여기서 개념 W는 F, G, H, I로 구성된 내포를 갖는다. 개념 W의 외연에 속하는 대상들은 공통적으로 F라는 속성을 지니지만 G, H, I의 속성들은 항상 공통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Figure 3은 세 번째 모델에서 해당된다. 이 때 개념 W는 F, G, H, I, K로 구성된 내포를 갖는다. 하지만 개념 W의 외연에 속하는 대상들은 아무런 공통된 의미론적인 속성도 지니지 않으며, 다만 다섯 개의 속성 중 네 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델의 경우 특정 대상을 개념 W의 동일한 외연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닌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이다(Carney and Scheer, 1980:240).

내포와 외연의 구조를 통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체계와 한계를 분석하는 접근 방식은 두 가지 장점을 갖는다. 첫 번째는 분석 방식에 대한 보편성의 확보이다. 내포와 외연은 모든 이론의 메타적인 이론 체계인 개념론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성격이 상이한 분야의 이론적 틀을 다른 특정 분야의 연구에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하는 방법론의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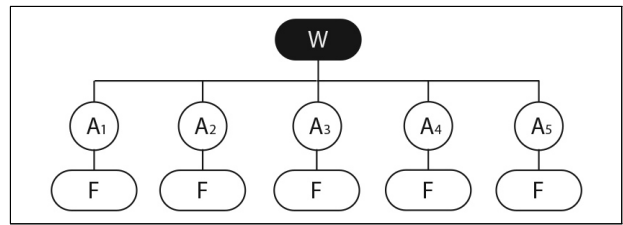


Figure 1. Carney and Scheer's Model 1

Source: Redrawn diagram form Carney and Sheer, 1980: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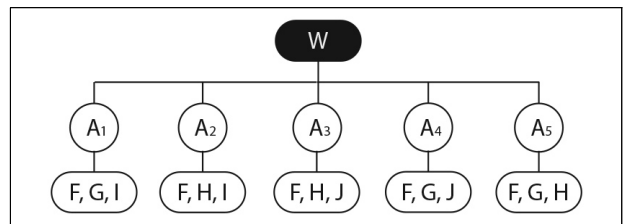


Figure 2. Carney and Scheer's Model 2

Source: Redrawn diagram form Carney and Sheer, 1980: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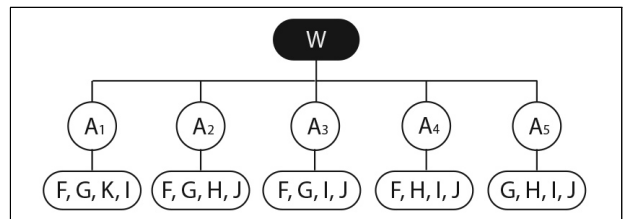


Figure 3. Carney and Scheer's Model 3

Source: Redrawn diagram form Carney and Sheer, 1980:237

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 두 번째는 연구 주제에 대한 특수성의 고려이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내적 요소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공통된 핵심적 문제는 '모호성'에 기인한다³⁾. 개념에서 모호성이 발생하는 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포와 외연의 개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비판의 핵심이 '모호성'에 있는 이상, 내포와 외연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문제와 한계를 파악하기 위한 최적의 개념적 도구가 될 수 있다.

II.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비판의 전개 과정

초창기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핵(Gray Hack), 웨인, 맥클로스키가 제기한 바가 있다(Shane, 2003; McCloskey, 2005). 이들의 비판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보다는 향후에 담론이 다루어야 할 과제에 대한 제시에 가깝다. 그러나 이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초기에 지적할 중대한 문제점이 없었다거나 그 한계를 전문가들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시기의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많은 관심을 받고는 있었지만 아직 이론으로서 완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텍스트들은 이론적 실체와 실천적 가능성의 규명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시도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전제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론적인 비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정한 수준의 이론적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아직 선언적 텍스트와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되었다고 보기에 힘들었다. 따라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정립기에 본격적인 비판적 견해가 등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를 통해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 실천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견해도 나타난다.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에서 셰인과 웰러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다(Shane, 2006; Weller, 2006). 『Kerb 15』에서는 웰러와 그레이가 본격적으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견해들을 제기한다(Weller, 2007; Gray 2007). 또한 모스타파비도 인터뷰를 통해서 Architectural Association School of Architecture(이하 AA)에서 진행 중인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접근이 지닌 한계점과 과제를 언급한 바가 있다(Martin, 2007). 『Kerb 15』를 통해서 제기된 비판적 견해들은 『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의 내용과 AA의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프로그램을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10년의 『Topos 71』에서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일방적인 긍정이나 부정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전의 성과를 분석하고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하려는 태도가 나타난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하는 왈드하임, 코너, 모스타파비의 텍스트들도 비판적인 견해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자 한다(Waldheim, 2010; Corner, 2010; Martin, 2007). 드레이크, 팜봄, 앤더슨, 데 물더와 새논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전제하면서 이론의 약점과 문제점을 지적한다(Drake, 2010; Palmboom, 2010; Andersson, 2010; De Meulder and Shannon, 2010). 웰러와 톰슨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을 정리한 연구 결과를 논문의 형태로 발표한다(Weller, 2008; Thompson, 2012). 국내의 경우에도 조경진, 배정환, 강효정은 한국적 상황을 전제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지역적 특수성의 문제를 고찰하였다(Cho, 2010; Pae, 2012; Kang, 2013).

2013년 뉴 어바니즘 진영에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비판서,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이 출판되면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이론의 외부에서 밝혔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전의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련 텍스트의 저자들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이론과 실천을 주도하는 인물들이거나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로 한정되었고, 비판적 견해 역시 이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론의 내적 틀 안에 갇힌 채 제기되었던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비판은 보완 사항의 제안이나 향후 해결할 문제의 지적과 같은 수준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하지만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뉴 어바니즘의 틀을 통해 비판적 견해를 개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텍스트들과는 차별화가 된다. 외부의 관점에서 제기된 비판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내적 한계점과 모순들이 존재함을 보여주었고, 이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와 함께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은 건축, 도시를 포괄하는 넓은 이론적 구도에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갖는 의미와 위치를 재정의해 주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를 지닌다. 이 저작은 뉴 어바니즘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건축의 진영의 사고인데 반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조경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시 계획과 설계를 규정하려는 시도임과 동시에 조경과 아방가르드적인 현대 건축 진영의 연대라고 규정한다.(Duany and Talen, 2013; Payton, 2013; Talen, 2013; Kunstler, 2013; Hill and Larsen, 2013; Brody, 2013). 더 나아가 이들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20세기 모더니즘 진영의 논리를 계승하여 새롭게 각색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한다(Duany and Talen, 2013; Kelbaugh, 2013; Talen, 2013; Kunstler, 2013; Mehaffy, 2013; Hill and Larsen, 2013). 이러한 관점에 볼 때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단순히 조경의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영역을 초월하여 오늘날 도시를 둘러싼 담론에서 진보적이며 아방가르드적인 진영을 대표하는 이론이 된다. 따라서 뉴 어바니즘과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논쟁은 미국적 상황에서 도시에 대한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입장과 모더니즘의 실험적인 태도를 이어받은 진보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새로운 대립구도를 의미한다.

III.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비판과 진단

2장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Table 1과 같다. 선정된 30여 편의 텍스트를 분

Table 1. Criticisms on landscape urbanism

Name	Contents	Type of Criticism
Shane, G. (2003)	Ignoring social justice and equity issues	Social aspects
McCloskey, K. (2005)	Risk of reductive control, overrating ecology	Method
Gray, H. *(Shane, 2006:70)	Absence of small scale strategies	Practice
Shane, G. (2006)	Inability to address the issue of urban morphologies and settlement pattern	Practice, method
Weller, R. (2006)	Rhetorical and ambiguous concepts, unsubstantial works on the ground	Concept, practice, method
Mostafavi, M. *(Martin, 2007:41)	Problems in traversing different scales	Method
Weller, R. (2007)	Overrating operational performance, rhetoric method and unpersuasive formal alternatives, not much influence in urbanism	Concept, practice, method
Gray, C. (2007)	Not manifested in projects, contradictions in concepts, conflicts in theory and practice, overrating data analysis, conventional spatial results	Concept, practice, method
Weller, R. (2008)	Unclear attitude on sprawl, risk of indeterminacy	Concept, practice, method
Machado, R. *(Waldheim, 2009:70)	Absence of formal alternatives	Practice
Ulam, A. (2009)	Discussion on high line: private and public ownership, negative impact on neighborhood, high operation cost	Social aspects
Palmboom, F. (2010)	Conceptual misinterpretation, conflation of disciplines, separated form and process rationale, neglecting architectonic dimensions	Concept, practice, method
Drake, S. C. (2010)	Ambiguous identity, uncertain outcome and effect, absence of clear methods, form orientated results	Concept, practice, method
De Meulder, B. and Shannon, K. (2010)	Rhetorical and ambiguous concepts, need of high level of control, no experienced and phenomenological projects	Concept, practice, method
Steiner, F. and Almy, D. (2010)	Ambiguous identity	Concept
Doherty, G. (2010)	Oversimplifying diverse aspects of urban greens	Sustainability, regionality
Scott, G. *(Drake, 2010:54)	Ambiguous identity	Concept
Zoh, K. (2010)	Difficulties in applying to different contexts	Regionality
Pae, J. (2012)	Unclear theoretic framework, absence of formal alternatives, ambiguous identity, difficulties in applying to different contexts	Concept, practice, method, regionality
Thompson, I. H. (2012)	Risk of logical error, formal focus, lack of clear solutions, risk of town and country binary rationale, overrating nature, risk of natural autonomy, lack of consideration of social aspects, too american, neglecting history	Concept, practice, social aspects, regionality
Lindholm, G. *(Thomposn, 2012:9)	Ambiguous identity	Concept
Duany, A. and Talen, E. (2013)	Ambiguous concepts, continuation of modernist rationale, unproven practice, neglecting history, overstating ecological values, metaphoric ecological concepts, economically unsustainable, lack of scientific proof, ignoring social activities	Concept, practice, method, social aspects, sustainability
Kelbaugh, D. (2013)	Formal focus, overstating ecological values, suitable for high-end spatial products, lack of social consideration, unsustainable in terms of larger system	Concept, practice, method, social aspects, sustainability
Payton, N. I. (2013)	Ambiguous identity, neglecting history, accepting sprawl, no consideration for code, superficial solution, ignoring daily urban life, formal focus, biased view on urbanism	Concept, practice, method, social aspects
Talen, E. (2013)	Falsity of indeterminacy, continuation of modernist rationale, logical inconsistency, neglecting history, overstating ecological aspects, lack of social consideration	Concept, practice, method, social aspects, sustainability
Duany, A. (2013)	Accepting sprawl, superficial solution for sustainability, overstating ecological footprint	Concept, practice, sustainability
Kunstler, J. H. (2013)	Intentionally confusing concept, supporting sprawl, continuation of modernist rationale, criticism on lu practice, neglecting architectural dimensions, economically unsustainable	Concept, practice, sustainability
Murray, P. (2013)	Neglecting history, supporting ineffective green space, ignoring importance of public life	Concept, practice, social aspects
Solomon, D. (2013)	Conceptual ambiguity, bias on figure/ground approach, superficial solution for infrastructural spaces, lack of logic behind formal solution	Concept, practice, method
Mehaffy, M. (2013)	Metaphoric concept, supporting auto-based sprawl, overstating aesthetic aspects, lack of social consideration, continuation of modernist rationale	Concept, practice, social aspects
Hill, K. and Larsen, L. (2013)	Conceptual ambiguity, accepting sprawl, lack of scientific proof, no alternative model for urbanism to be implemented	Concept, practice, social aspects
Rios, M. (2013)	Neglecting social inequity	Social aspects
Morenas, L. (2013)	Risk of neglecting regionality, aggravating social inequity of green amenity	Regionality, social aspects

* The mark indicates the source where the criticism was cited.

석하여 주제에 따라 개념, 실천, 수단, 생태성, 사회성, 지역성으로 비판적 견해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중 개념(concept)은 이론적 개념에 대한 비판을 의미하며, 실천(practice)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영역에 대한 문제를 다룬 비판들 포함한다. 그리고 수단(method)은 이론을 실천으로 이행할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의 유형이다. 이 세 유형은 본 연구에서 분석할 내재적 비판에 해당한다. 반면, 생태성, 사회성, 지역성의 세 유형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외적 효과와 관련된 외재적 비판에 해당한다. 생태성(ecology)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접근 방식이 실제로는 생태적이지 않다는 비판과 관련된 주제이며, 사회성(social aspects)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주제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성(regionality)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북미와 유럽 이외의 지역에 적용될 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다. 외재적 비판에 해당되는 세 유형의 비판은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1. 이론적 개념

1) 이론적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내용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들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된 비판으로서, 웰러나 새넌 같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스트는 모호한 개념들을 이론의 약점으로 지적한 바가 있다(Weller, 2006; 2007; 2008; De Meulder and Shannon, 2010). 배정한 역시 개념의 모호함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이론적으로 명료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였고(Pae, 2012:104), 쿤스틀러는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지 못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장은 실제 없는 수사라고 단적으로 말한다(Kunslter, 2013).

또 다른 유형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한 이론적 주장에서 개념상의 모순을 지적하는 비판들이다. 가장 최근의 비판적 견해를 담고 있는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의 텍스트들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모호함을 일괄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특정한 개념적 오류를 비판한다. 페이톤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적극적인 도시에 대한 개입을 주장하지만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주목하는 유기 공간이나 기반시설적 공간 역시 도시의 주변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Payton, 2013:101). 탈렌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이론적으로 포스트-구조주의와 맑시즘에 근거하여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비판하면서 스스로 경관을 상업화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분석한다(Talen, 2013:109). 탈렌과 톰슨은 자연과 도시의 통합을 주장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실제로는 생

태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자연과 도시의 이분법을 오히려 강화한다고 비판한다(Talen, 2013:111; Thompson, 2012:16).

페이톤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도시의 담론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던 조경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움직임이라는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영역적 협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목표는 도시에서 조경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있기보다 오히려 건축과 도시계획의 관심 밖에 있었던 도시의 주변부를 다룸으로써 기존의 방식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본다면 페이톤의 주장처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방향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탈렌의 비판 역시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 코너가 하비(David Harvey)의 글을 인용한 바는 있지만,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담론에서 포스트-구조주의의 개념이나 맑시즘 계열의 주장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배경을 포스트-구조주의와 맑시즘으로 규정한 탈렌의 주장은 정황적 근거에 의존한 주관적인 판단에 가깝다. 자연과 도시의 이분법에 대한 탈렌과 톰슨의 비판 역시 관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자연과 도시의 이분법을 극복하여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점은 탈렌을 포함한 다른 여러 비판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때문에 도시에 자연의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장을 모순된 이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두 번째 유형의 이론적 비판은 개념의 모순에 대한 정당한 지적이라기보다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다양한 해석의 결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개념의 모순을 지적하는 두 번째 유형의 비판은 개념의 표면상으로는 첫 번째 유형의 비판과는 다른 이론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나, 두 번째 유형의 비판을 야기한 근본적 원인 역시 개념의 모호성에 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이론적 개념과 방향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관적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었으며, 이는 두 번째 유형에서 나타나는 자의적인 비판의 원인이 된다. 개념의 모호성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스트들도 중대한 약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이론 내부에서도 명확한 이론적 개념을 제시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노력들이 있었다. 코너는 두 차례 걸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며(Corner, 2003; Corner, 2006), 월드하임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다양한 기원을 밝히며 실천적 사례를 통해서 개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Waldheim, 2002; 2006; 2007; 2009; 2010). 웰러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지향점과 특징을 정리하여 제시한 바가 있다(Weller, 2007; 2008).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들 역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과 전략들을 규정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할애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에서는

다시 개념적 모호성의 문제가 주요한 비판으로 제기된다. 이러한 사실은 여전히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담론에서 개념의 모호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 개념적 모호성에 대한 비판의 분석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적 모호성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한 개념이 두 개 이상의 내포를 지니므로써 발생하는 모호함으로써, 사전적 애매함(Lexically ambiguity)으로 정의된다(Carney and Scheer, 1980:266). 코너가 2003년의 제시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다섯 가지 주제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개념적 모호함이 공통되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수평성(Horizontality)'의 개념은 확산된 수평적 도시 형태나 공간의 구조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교환(permutation)', '연합(affiliation)', '적용(adaptation)' 등의 비물리적인 표면의 전략을 의미하기도 한다(Corner, 2003:59-60). 수평성은 공간 구조로서의 내포와 전략으로서의 내포를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모호해진다. '기반시설(Infrastructure)' 역시 수평성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내포를 지니므로써 모호해지는 개념의 예이다. 코너는 조경의 기반시설적 작업, 도시계획의 기반시설적 공간, 그리고 법규와 정책적 요소를 기반시설의 개념으로 포괄한다(Corner, 2003:60). 세 가지 기반시설의 의미는 통합되지 않고 병렬적으로 기술됨으로써, 새롭게 정의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기반시설의 개념 내에서는 서로 다른 내포가 충돌을 하면서 의미적으로 모호하게 된다.

두 번째는 한 개념의 외연을 규정하기에 필요충분한 내포의 의미론적 속성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내포적 모호함(Intentional vagueness)이다(Carney and Scheer, 1980:264). 부연하자면,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를 한정하는 내포의 속성들이 요구되는데, 내포의 속성이 적어 개념을 정확히 정의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모호함이 내포적 모호함이다. 이 경우 개념은 카니와 쉐어의 모형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Figure 1, 2, 3 참조). 일반적으로 내포와 외연은 반비례의 관계를 갖는다(Deleuze, 1968:50). 내포의 속성들이 늘어나면 개념은 한정되어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그에 해당하는 가능한 외연의 대상들은 제한된다. 반면, 내포의 속성이 줄어들다는 것은 개념의 규정성이 약해짐을 의미하고, 이 때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외연의 대상들은 늘어나게 된다.

코너의 개념 중 '생태(Ecology)'는 내포적 모호함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코너는 전통적인 환경론자들이 사용하는 생태와 구분되는 새로운 생태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그는 프로세스와 상호교환성의 측면에서 볼 때 도시도 숲이나 강처럼 생태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연적 환경은 물론 도시나 경제 구조까지 생태의 개념으로 포괄한다. 이 때 확장된 생태의 개념은 '통합적인 유연한 시스템(Integrative soft systems)'을 의

미한다(Corner, 2003:63). 그러나 '유연한 시스템'으로서 '생태'는 외연의 대상을 확장하기 위해서 반비례 규칙에 따라 개념을 규정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내포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충분한 의미론적 속성들이 결여된 개념은 내포적 모호함으로 인해 개념적 차별성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코너가 제시한 개념들은 서로 유사한 의미를 갖게 되어 전체적인 이론의 구도에서 그 역할이 무의미해진다. 문제는 주요한 개념들의 모호함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서로 통합될 수 없는 여러 개의 내포를 지닌 개념들에 근거하여 담론을 전개함으로써 이론적 내용은 물론 전체적인 담론의 체계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게 된다.

3) 개념적 모호성의 원인과 진단

개념적 모호함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들이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다. 특정한 이론적 내용을 구성하는 개념들은 일상 언어에서 합의된 개념이나 다른 이론적 체계에서 사용된 개념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거나 기존의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경우 주로 재정의의 통해 차별화된 이론적 개념을 제시하는 방식을 택한다. 그리고 이때 기존에 통용되는 개념의 범주를 확장함으로써 개념을 재정의하고자 한다. 코너가 제시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제들 역시 이러한 확장의 방식을 통해 재정의된 개념들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평성'의 개념은 물리적인 수평적 표면(horizontal surface)의 개념에 비물리적인 표면의 전략(surface strategy)을 추가함으로써 재정의되며, '기반시설'의 경우 조경과 도시계획에서 통용되던 기반시설의 개념에 법과 정책의 요소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규정된다.

기존의 개념을 확장하여 새롭게 재정의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는 않다. 대부분의 재정의된 개념은 기존에 통용되는 개념보다 더 많은 내포적 속성을 지니며, 그에 해당되는 외연의 대상들을 제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특정 이론을 위해 재정의된 개념은 기존의 개념에 비해 의미적으로는 더욱 한정된다. 이와 반대로 기존의 개념을 확장하여 재정의하고자 할 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 개념이 동시에 여러 개의 내포를 가짐으로써 혼동되는 사전적 애매함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더 나아가 개념이 과도하게 확장되면 개념을 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의미론적 속성의 총계(總計)가 존재하지 않는 내포적 모호함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념적 모호함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탈영역적 접근을 추구하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개념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재정의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담론은 도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주장해왔다. 이 때 새로운 접근은 기존의 방식을 전적으로 부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영역간의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고 융합적인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Waldheim, 2006:57). 이론은 물론 실천과 교육으로 연계되는 이와 같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전제와 방향을 반영하기 위해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들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발전된 상반된 시각과 논점들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성격을 지녀야 했다. 개념의 내포를 줄이고 외연을 확장하는 재정의의 방식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온 유사한 개념들을 포괄하면서도 기존의 개념들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통합적 개념을 제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코너가 제시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들은 대부분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관련된 이후의 이론적 성과나 연구의 토대가 되는데⁵⁾, 담론 내에서 상당한 권위를 갖는 코너의 개념들은 추가적인 텍스트에서 제시되는 개념들에 대한 유개념(類概念)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이론적 구도에서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더라도 이전에 제시된 개념의 종개념(種概念)의 성격을 갖게 되어 새로운 개념의 내포는 종차(種差)에 불과하게 된다. 종개념은 유개념에 포섭되기 때문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은 근본적으로 유개념의 모호함을 수정할 수 없다. 따라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적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담론 내에서 현재 이론적 유개념으로 작동하는 주요 개념들을 대신할 명확히 규정된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론이 선언된 지 2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한 개념을 파기할 경우,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이론적 성과의 정당성을 부정하게 되어 담론 자체의 파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접근과 가능성을 포괄하려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철학을 부정하지 않는 한 여전히 개념의 내포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적 모호성은 추가적인 이론적 텍스트를 제시함으로써 해결될 수 없는 담론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2. 실천

1)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

실천적 이론을 지향해온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구도는 실천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이론의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제기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에 대한 비판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형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실천적 결과가 없었다는 지적으로, 주로 이론의 초기에 제기되어온 비

판이다. 마차도(Rodolfo Machado)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생산한 형태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Waldheim, 2009:235), 웰러 역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대부분 실현된 작품을 통해 실현된 바가 없다고 인정한다(Weller, 2006:80).

둘째 유형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결과가 형태 중심적이라는 비판이다. 그레이와 드레이크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프로젝트들이 형태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이론적 주장은 달리 고정된 형태로 귀착된다고 비판한다(Gray, 2007:98; Drake, 2010:56). 켈바우와 페이톤은 뉴 어바니즘의 획일적인 형태를 비판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역시 특정 형태에 집착하는 점에서는 형태중심적 성향을 보인다고 평가하며(Kelbaugh, 2013:76; Payton, 2013:97), 솔로몬과 맥하피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합리적인 형태의 논리보다는 새롭고 흥미로운 형태를 추구하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고 비판한다(Solomon, 2013:169, Mehaffy, 2013:194).

셋째 유형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이 기존 조경의 결과와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스콧(Gary Scott), 스테이너와 알미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전통적인 조경의 번안에 불과하며 조경은 항상 도시의 영역을 다루어왔다고 지적한다(Drake, 2010:54; Steiner and Almy, 2010:75). 드레이크 역시 움스테드가 구상한 근대적 조경은 처음부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지향과 유사하게 광범위한 영역을 함께 아우르며 통합적인 접근 지향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Drake, 2010:52). 뉴 어바니스트들은 기존 조경의 접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기존의 조경과 동일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입장에서 정체성에 대한 비판을 전개한다. 페이톤, 두아니, 솔로몬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이 토목의 결과를 옹호하는 녹색을 통한 치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Payton, 2013:98; Duany, 2013:117; Solomon, 2013:167), 쿤스틀러, 머레인은 전통적인 조경과 맥하그식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이 과거의 조경이 보여준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Kunstler, 2013, Murrian, 2013).

모순적이게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기존의 조경을 비판하면서 출발하였다. 왈드하임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기원을 90년대 조경에 대한 코너의 비판 의식에서 찾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코너의 작업은 최근 조경의 실천적 발전 역시 명백히 비판하는데, 그는 현대 조경이 이윤을 최적화하면서 거칠게 토목적으로 처리된 환경을 가리는 풍경만을 양상해온 많은 조경가들에 의해 규정된다고 주장한다(Waldheim, 2002:12)." 이러한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초창기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한편으로는 당시 도시계획의 접근을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조경과 방향을 차별화하고자 하였다. 이후에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전통적인 조경과의 차별성을 지속적으

로 강조해왔다. 코너는 기존의 조경이 단순히 장식적인 일을 수행하는 업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Corner, 2006:29), 전통적인 조경은 공원이나 정원과 같은 도시의 부분적인 공간을 다룸으로써 도시에 기여했던 반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전체적인 도시의 체계와 구조라고 설명한다(Corner, 2010:26). 왈드하임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목가적인 이미지 속에 생태적 체계를 은폐하기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조경과 차별화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맥하그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도시와 자연을 가르는 이분법적인 사료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맥하그의 전통과 명확한 개념적 차이가 있다고 언급한다(Waldheim, 2007:42). 앤더슨도 옴스테드와 맥하그의 전통과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유사성이 존재하나 시대정신은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하며(Andersson, 2010:83), 배정환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Pae, 2012:106).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은 개념, 기원, 접근 방식, 실천의 결과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비판들의 대상은 크게 이론적 영역과 실천적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이론적 영역에서 기존의 조경과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차별성이 부재한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왈드하임과 코너의 논의에서 기존의 조경은 지역적으로는 미국에 한정되고 시기적으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말까지의 기간에 한정되는 제한적 개념으로 정의된다⁶⁾. 따라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차별화하고자 하는 기존의 조경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광의의 조경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특정하게 규정된 조경과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독립적인 담론의 성격을 갖는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때 기존의 조경과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각각의 내포와 외연을 갖는다. 각각의 담론을 구성하는 이론적인 내용들은 담론의 내포의 속성들에 해당되며, 실천적인 프로젝트들은 조경과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외연을 구성하는 대상이 된다.

이론적 영역에서 조경과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차별성이 없다는 진술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의미한다. 첫째,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현대 조경의 수사적 각색일 뿐 실질적으로 조경과 동일한 내포를 갖는 같은 개념인 경우이다. 둘째,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조경의 특수한 양태(樣態)로서 조경의 내포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내포에 완전히 포함되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조경의 유개념으로 작동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전통적인 조경의 실천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을 했으며, 여러 차례 기존의 조경과 차별화되는 지점들을 이론적으로 명확히 제시했기 때문에 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기존의 조경이 동일하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 차별성이 부재한다고 볼 수 없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전통적인 조경의 학제나

업역을 넘어 건축과 도시계획을 융합하는 영역적 재편성을 추구하며(Waldheim, 2006:39), 특히 AA를 중심으로 전개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논의와 실천의 경우 오히려 조경보다는 건축적 영역에 가깝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완벽하게 조경의 하위 종개념으로 포섭되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두 번째 경우 역시 기존 조경과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사이의 차별성이 부재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처럼 이론적인 영역에서 조경과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분명히 차별화된 지점들이 존재한다면, 두 개념의 정체성의 혼란은 외연, 즉 실천적 결과들의 총계가 이루는 체계의 차별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보여주는 실천적 결과와 광의의 현대 조경 프로젝트는 명확히 구분되기 힘들며, 이는 실천적 영역뿐만 아니라 이론적 영역을 포함한 이론 전체의 차별성을 모호하게 만든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기존 조경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개념이나 방향이 차별화되지 않기보다는 실천적 결과의 차별성을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실천에 대한 비판의 분석

실천의 영역에서 제기된 세 가지 유형의 비판 중, 실천적 결과의 부재를 지적한 첫 번째 유형의 비판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프로젝트들이 나타나면서 더 이상 제기되지 않는다. 2001년 Fresh Kills 공모전을 통해 코너의 안이 주목을 받으면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구체적인 실천의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으며, 2004년의 공모전을 거쳐 2009년 High Line의 첫 번째 공구가 완공되자 실현된 실천적 결과에 대한 논쟁도 잠잠해진다. 하지만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나타난 실천적 성과들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계열의 프로젝트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두 번째 유형인 형태중심적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은 비판의 두 가지 전제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 우선, 형태중심적인 실천이 부정적이라는 전제 하에 제기되는 비판이 있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은 이분법적으로 형태중심적인 실천이 모두 부정적이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비판의 초점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다른 기능이나 효과의 측면을 무시한 채 과도하게 형태만을 강조한다는 점에 맞추어진다. 하지만 기능주의 미학의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특정한 형태 자체와 대상의 효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설령 그 관련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사용자의 유형이나 대상이 놓이는 맥락과 같은 대상 외부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적으로 형태에 대한 강조가 효과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비판할 수는 없다. 또한 뉴 어바니

스트들이 주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비판을 전개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기존의 형태를 차용하면서 도시의 구조와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뉴 어바니즘은 새로운 형태에 대한 실험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형태에 대한 강조의 정도를 비판하는 뉴 어바니즘의 견해는 주관적으로 편향된 비판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입장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형태중심적인 결과를 거부한다는 전제 하에서 비판을 제기한다.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형태중심적 실천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수 없을 지라도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이론적으로 과정과 비결정성을 강조하면서 형태중심적 사고를 지양한 이상, 실천적 영역의 형태중심적 결과는 이론적 주장과 실천의 모순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와 논리는 이론의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오해의 결과이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형태중심의 실천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디자인을 통한 공간적 형태의 제시를 핵심적인 실천의 목표로 삼았다. 코너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형태적 대안을 부정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형태와 물리적 특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물리적 예술이 유효하지 않다는 잘못된 주장을 이끌어낸다. 과정을 대한 논의는 형태, 공간, 물질이 세계에 행사하는 풍부한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형태와 물질이 미적, 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수단적이고 생산적인 효과로 평가받아야 한다(Corner, 2003:61).”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의 대부분의 텍스트들도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이 물리적인 공간과 공간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는 디자인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Czerniak, 2006; Corner, 2006; Pollak, 2006; Shane, 2006; Weller, 2006). 다만 이때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추구하는 형태는 과정과 비결정성을 수용하기 위한 최적화된 형태라는 점에서 기존의 디자인적 형태와는 차별화된다. 따라서 형태중심적 실천의 결과가 이론과 모순이라는 비판은 부적절하다.

세 번째 유형인 기존 조경과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결과의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외연적 모호함의 문제와 관련이 된다. 외연적 모호함은 개념의 속성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불분명한 경계사례(borderline case)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한다(Rosanna, 2000:6). 일반적으로 한 개념의 외연 내에 들어오는 대상들이 존재한다면, 명확하게 외연 내에 들어오지 않는 대상들도 존재한다. 이 중 어느 것에도 들어오지 않는 대상들이 존재할 때 이를 경계사례라고 지칭하며, 특정 개념이 경계사례를 허용하면 외연적으로 모호하다고 정의한다(Carny and Sheer, 1980:261).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외연은 다수의 경계사례를 허용한다. 주요한 텍스트에 인용된 프로젝트라도 상당수는 경계사례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왈드하임은 Downsview Park 설계공모를 “랜스케이프

프 어바니즘적 실천의 가장 정형화된 예”로 제시한다(Waldheim, 2006:53). 그러나 쿨하스(Koolhaas R.)의 당선작 Tree City의 경우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결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계사례에 속한다. 쿨하스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과의 관련성을 언급한 바도 없으며 그의 프로젝트들을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이라고 규정할 명확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쿨하스의 텍스트와 작업들은 여러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텍스트에서 중요하게 인용되기 때문에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힘들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경계사례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다른 담론적 체계에 속하는 개념의 경계사례에 해당되거나 그 외연에 속할 때 실천적 영역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발생한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 경계사례의 중첩은 대부분의 경우 조경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 조경과의 차별성에 대한 비판이 중요하게 논의로 제기된다.

3) 실천적 결과의 차별성 부재에 대한 원인과 진단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다수의 경계사례를 허용하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탈영역적인 방향에 기인한 이론의 구조적인 측면이다. 앞선 이론적 개념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여러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개념을 제시하고자 기존의 개념을 확장하여 재정의하였고, 이는 필연적으로 개념적 모호함을 초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탈영역적인 태도를 지향하는 이상 실천적 결과 역시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들을 포섭해야 했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한 이론서들을 보더라도 예시되는 실천적 사례의 범주는 새로운 형태의 공원은 물론, 건축, 토목, 심지어는 비물리적인 시스템이나 정보 체계까지 포괄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개념의 확장이 개념적 모호함을 초래했듯이 다양한 사례를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외연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경계사례를 허용하게 되어 외연적 모호함이 야기된다.

둘째,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형성 과정의 특수한 통시적 조건과 관련된 측면이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주장에 근거한 실천적 결과는 이론이 선언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나타난다. 따라서 초기의 이론을 구성하면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실천적 결과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담론의 외부에서 사례를 찾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의 사례들은 이미 기존의 담론의 체계에 속한 실천적 결과이기 때문에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을 규정할 때 다른 영역과의 정체성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웠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해석적 이론(Interpretive Theory)의 성격만을 갖는다면 이러한 실천적 사례의 규정 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

으로 건축과 조경에서 특정한 사조나 양식에 대한 규정은 이미 과거에 완결된 실천적 결과들을 일종의 현상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공통적인 특성과 의미를 해설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규칙과 논리를 도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새로운 사조나 양식은 기존의 체계로 포섭되지 않는 사례들에서 보이는 새로운 경향을 정의하거나, 기존의 체계에 속하더라도 특수한 관점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례들을 재구성함으로써 규정될 수 있다. 한 예로, 동일한 아이젠만(Eisenman P.)의 건축을 젠크스(Jencks C.)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규정하고(Jencks, 1984), 위글리(Wigley M.)와 존슨(Johnson P.)은 해체주의로 규정한 바가 있다(Mallgrave and Goodman, 2006). 아이젠만의 작업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규정됨과 동시에 해체주의로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조의 경계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 사조에 대한 개념적 구분은 특정한 관점에 따른 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아이젠만의 작업은 동시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외연에 속하면서 해체주의의 외연에 속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외연의 대상이 두 개의 다른 내포를 지닌 개념에 속하는 경우인데, 이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개념적 구조의 유형이다(Carney and Sheer, 1980: 227).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경우 해설적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천적 이론을 지향하면서 특수한 경계사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초기의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사례는 이론적 내용에 선행하는 프로젝트로서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선별된 예시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에 근거한 구체적인 실천적 결과가 나타나면서 해설적 이론의 성격이 강했던 초기의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제시한 사례에 대한 규정성이 모호해진다. 결과적으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은 해설적 이론에서 출발하여 실천적 이론으로서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다른 층위를 갖게 되며, 초기의 예시적 실천의 사례들은 경계사례가 되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요인이 된다. 움스테드의 백 베이 펜스(Back Bay Fens)이나 센트럴 파크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기원을 설명하는 실천적 예로 사용되면서(Corner, 2006; Waldheim, 2006; Mossop, 2006),

이후 조경계 내부에서 정체성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월드하임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건축적 계보를 추적하면서 사례로 사용한 미국의 모더니즘 건축의 프로젝트들은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에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모더니즘 건축의 계승이라는 오해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에서 제시된 건축적 사례들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지형적 건축과의 혼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다양한 영역 간의 관계에서 경계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기존 조경과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결과의 차별성이 논란이 되어온 이유는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많은 경계사례가 동시에 조경의 경계사례가 되거나 조경의 외연의 대상에 속하기 때문이다. 카니와 쉬어의 모델을 통해서 정체성의 혼란이 야기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내포의 속성을 명확히 정의하여 외연의 대상을 규정하기보다는 가족유사성이 발견되는 실천적 사례들을 외연으로 포섭함으로써 그 대상을 규정한다. 따라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개념의 구조는 카니와 쉬어의 세 번째 모델에 가깝다(Figure 3 참조). 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조경의 개념적 구조는 Figure 4와 같이 도식화하여 비교할 수 있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을 W라고 한다면, 대상 A₁, A₂, A₃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외연이 된다. F, G, H, I는 W의 의미론적 속성이며 이들의 포괄적 선연(inclusive disjunction)은 W의 내포를 규정한다. 대상들은 가족유사성만을 지니므로 공통된 속성을 결여한다. 마찬가지로 조경의 개념을 V라고 한다면, 대상 B₁, B₂, B₃은 조경의 외연이며 F, G, J, K는 V의 의미론적 속성으로 내포를 규정한다. 이 때 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조경의 개념 W와 V는 F, G의 공통된 의미론적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각각의 외연에 해당되는 대상들은 혼동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F, G, J라는 속성을 갖는 대상 C₁은 W의 의미론적 속성 중 F, G를 갖지만 J의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W의 경계사례에 해당된다. 속성상 C₁은 B₁과 동일하기 때문에 W의 경계사례이면서 V의 외연적 대상에 해당된다. 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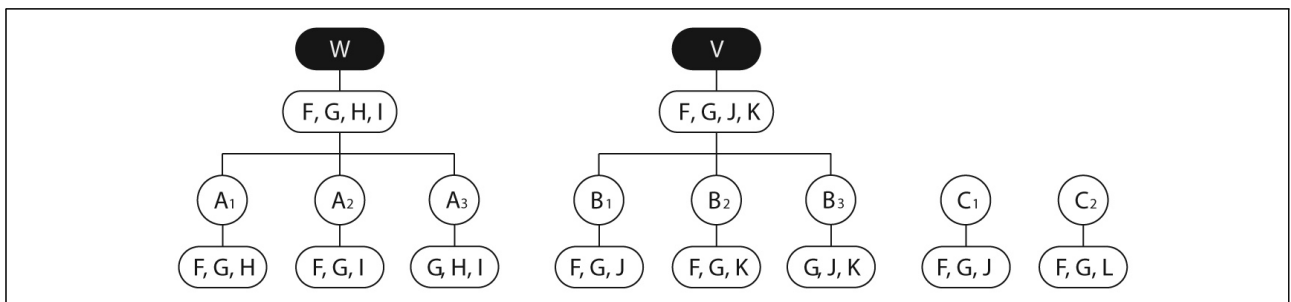


Figure 4. Concept model of landscape urbanism, landscape architecture, and broader cases

스테드의 백 베이 펜스가 이와 같이 기존 조경의 사례로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경계사례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이다. F, G, L이라는 속성을 갖는 대상 C_2 는 W와 V의 공통된 의미론적 속성 F, G를 갖지만 그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L이라는 속성 때문에 동시에 W와 V의 경계사례가 된다. 기본적으로는 건물이지만 외부와 연결되어 공원의 성격을 함께 갖는 지형적 건축은 이처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경계사례이면서 조경의 경계사례가 되는 대표적인 예이다.

모델을 통한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많은 경계사례가 동시에 조경의 경계사례가 되거나 외연의 대상에 속하는 원인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기존의 조경이 F, G와 같은 공통된 내포의 속성들을 갖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기존의 조경이 이론적인 차원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기존 조경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영역의 사고를 폭넓게 수용하지만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기본적으로 미국 조경의 담론 내에서 발생한 이론이다. 따라서 그 이론적 내용들은 상당부분 기존의 조경 이론과 밀접한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미국 근대 조경의 광의적인 접근과 생태학에 근거한 맥하그의 방법론의 내용을 상당부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은 왈드하임도 인정하는 바이다(Waldhiem, 2002; 2006). 하지만 이론적 내용의 공통점이 반드시 이론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새로운 이론은 선행된 이론적 업적에 바탕을 두며 상당부분을 공유하기 마련이다. 차별성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은 실천적 결과의 정체성 부재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천적 영역과 이론적 영역은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이론적 영역의 속성들은 실천적 결과들이 보여주는 영역적 모호함의 원인이 된다.

3. 이론과 실천의 관계

1) 이론과 실천의 괴리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

이론과 실천, 각각의 주제와 함께 고찰해야 할 문제는 이론과 실천의 관계이다. 명확한 이론적 내용이 제시되고 차별화된 실천적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이론적과 실천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면 실천적 이론으로서의 의미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론과 실천의 관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립될 수 있으나, 그동안 제기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관련된 이론과 실천 괴리에 대한 비판은 주로 이론적 내용을 실천의 형태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실천적 방법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제기된다.

하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제시하는 실천적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맥로스키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접근 방식에서 나타나는 생태에 과도한 강조가 환경결정론과

같은 환원주의적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M'closkey, 2005:124). 웰러는 AA에서 제시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방법론이 난해한 개념들만큼이나 모호하며 불분명한 맵핑의 수준에서 결과를 유보할 뿐이라고 비판하며(Weller, 2007:68), 그레이는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설계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식이 현실과는 괴리가 된 자기지시적인 데이터의 네트워크만을 생산한다고 진단한다(Gray, 2007:99). 팜봄은 본인의 실천적 경험을 근거로 하여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을 실천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시의 공간을 하나의 '수평적 표면(horizontal surface)'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간과 영역을 다양한 층위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almboom, 2010). 솔로몬은 경계를 지우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방식이 더 바람직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Solomon, 2013:165).

또 다른 관점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이론을 실천으로 구현할 명확한 실천적 방법 자체를 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 비판의 초점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특정한 개념의 실천적 구현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에 맞추어진다. 핵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현상적으로는 더욱 중요한 작은 스케일의 전략을 간과하고 있음을 비판한다(Shane, 2006:70). 모스타파비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광역적 스케일 도시와 작은 스케일의 공간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향후의 과제로 제시한다(Martin, 2007:41). 또한 배정환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프로세스의 개념을 형태로 연결시킬 명확한 방법을 아직 보여 주지 못했다고 비판한다(Pae, 2012:105).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에서도 실천적 방법의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된다. 뉴 어바니스트들은 구체적으로 비결정성(Indeterminacy)이나 유동성(Flexibility)과 같은 특정한 개념을 구현할 실천적 방법의 부재를 지적한다. 두아니와 탈렌은 비결정성이나 프로세스의 개념을 실제로 도시화의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Duany and Talen, 2013:12), 유사한 맥락에서 힐과 라센은 비결정성과 같은 개념이 실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문제에 명확한 대답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한다(Hill and Larsen, 2013:119). 탈렌은 비결정성과 유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결국 유기된 공간의 재프로그래밍(reprogramming)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Talen, 2013:113). 이와 함께 뉴 어바니스트들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영역간의 연대를 가능하게 할 정책적이며 행정적인 측면의 구체적인 협력 방식을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켈바우는 뉴 어바니즘이 다양한 행정, 정책, 법률적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며 시민단체와 정부조직, 개발업자를 포함한 폭넓은 실천적 연대를 형성한 반면, 랜드스케이

프 어바니즘의 협업은 소수의 건축가와 조경가 사이의 연대에 국한될 뿐 클라이언트나 이용자들은 배제되어 있다고 비판한다(Kelbaugh, 2013:67). 페이톤과 솔로몬은 역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영역간의 혼성을 주장할 뿐 도시화를 다룰 법적, 행정적 대안이나 공당 작업의 방식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Payton, 2013:98; Solomon, 2013:167).

2) 실천적 방법에 대한 비판의 분석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중 웰러와 그레이의 비판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방법론 전체에 대한 비판이기보다는 AA라는 특정한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으로 보는 것이 옳다. 코너와 같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중심적인 인물의 작업을 논외로 하고 학생 작품에서 보여지는 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AA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논의 전반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맥로스키, 팜봄, 솔로몬의 비판의 경우 초점은 서로 다르지만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제시하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공통된 입장을 갖는다. 맥로스키는 환원주의의 위험성을 주장하지만 어떠한 상황과 측면에서 환원주의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견해는 밝히지 않는다. 팜봄의 경우 자신의 실천적 방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방법을 부정하는 측면이 강하며, 솔로몬 역시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경계 없는 공간의 전략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긍정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견해들이 제기하는 비판적 관점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비판들 역시 특수한 관점과 상황적 조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방법에 보편적이며 객관적으로 타당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실천적 방법의 부재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은 이론의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한다. 비판적 견해들이 지적하듯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이론적 개념이나 주장들을 실천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나 수단을 직접 제시한 적이 없다. 코너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수평적 표면의 전략'이나 '방법론으로서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언급한 바가 있으나(Corner, 2003:60; Corner, 2006:36), 구체적인 예시 없이 추상적인 개념들만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방법론의 내용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왈드하임, 쉐인, 웰러와 같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스트들은 다양한 사례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예시하면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방법론을 찾고자 한다(Waldheim, 2006: 2010; Shane, 2003: 2006; Weller, 2006: 2007; 2008). 하지만 개별적인 프로젝트의 디자인 방식들의 나열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체계적인 실천의 방법론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 또한 이 경우 대부분의 사례들은 랜드스

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이 제시되기 이전에 등장한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일관된 전략의 체계를 사례들에서 발견할 수 다하더라도 이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보편적인 실천적 방법론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따라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이론적 내용을 실천으로 구현할 차별화된 방법론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으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선행적 텍스트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구체화된 실천적 방법에 대한 논의들이 나타난다. 'Programming the Urban Surface'에서 월은 도시적 표면(Urban Surface)을 다루는 실천적인 원칙들을 제시하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수평성의 개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Wall, 1999). 코너가 'The Agency of Mapping'을 통해 제시한 맵핑의 방법론들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디자인 기법으로 활용된다(Corner, 1999). 또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던 시기에 코너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수업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다양한 디자인 전략들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프로젝트에 도입되어 차별화된 실천적 결과를 생산하는데 기여한다. 대표적인 예로, 코너가 상당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발전시킨 포토-몽타주(Photo-Montage) 기법은 Fresh Kills 설계공모의 당선작의 디자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Jeong and Corner, 2005).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방법론을 이론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었고 이미 실천에서도 차별화된 디자인의 방법론을 이미 적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이를 체계적인 실천적 방법론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분히 의도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실천적 방법의 제시를 유보해왔던 이유는 답론에 근거한 실천적인 결과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선언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났다는 상황적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실천적 방법론을 초기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면 빠른 기간 내에 명확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나, 이 경우 이론에 근거한 실천적 결과가 없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해설적 이론에 머물 수밖에 없다. 실천적 이론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천을 관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닫아버리기 보다 이를 유보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잠재적 변수를 열어두는 편이 유리하였다. 또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모호함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론적 개념의 범위를 확장하였고 최대한 많은 실천적 사례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외연으로 포섭하려 하였는데, 실천적 방법을 고정하게 되면 가능한 실천의 결과들은 한정될 수밖에 없어 탈영역적 접근

은 지향하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실천적 방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많았다.

하지만 한편으로 실천적 방법의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실천적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음으로서 이론과 실천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과도하게 열어두어 이론의 전체적 구도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스테이너와 알미는 경관을 매체로 도시의 구조를 형성하려는 모든 시도를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방식으로 간주하고 중국의 역사 도시 항주 역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프로젝트로 간주한다(Steiner and Almy, 2010). 유 역시 이와 유사하게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방식과 중국의 풍수지리적 접근의 유사성을 주장하면서 풍수를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으로 해석한다(Yu, 2010). 이와 같은 무리한 시도들은 개념의 모호성, 넓은 외연의 경계사태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실천적 방법의 부재로 인해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임의로 설정하게 됨으로서 발생한다. 임의의 수준에 가까운 광범위한 해석이 일어나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담론의 내포는 극도로 축소되어 의미 있는 이론으로서 차별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3) 실천적 방법의 부재에 대한 대응과 진단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실천적 방법의 부재라는 문제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하나는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개념에 근거하여 실천적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개념적 특징을 찾아냄으로서 이론과 실천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방법을 모색한다. 이러한 접근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개념과 틀이 구성이 된 후 이를 토대로 실천이 성립했다는 전제를 가정한다. 그러나 그 전제는 실천적 프로젝트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내용을 형성하는데 미친 영향력을 간과하게 만든다(Kim and Jeong, 2014:3).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이론적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천적 사례를 예시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실천적 사례의 전략과 특징들을 통해서 이론적 내용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셰인은 “경관이 도시 만들기의 도구로서 건축적 형태를 대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디자이너의 작업을 설명하고자”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이 고안되었다고 보며(Shane, 2006: 64), 왈드하임도 새로운 조경과 도시 설계 프로젝트들을 기술할 새로운 모델로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을 사용했다고 밝힌 바가 있다(Waldheim, 2002). 만일 실천적 사례로부터 도출된 이론적 지점들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다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담론에서 이론과 실천의 관계는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규정될 수 있겠지만,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정의한다고 해서 실천적 방법이 제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이론적 개념과 실천적

결과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시도는 실천적 부재의 문제를 본질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또 다른 방식은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실천적 사례의 예시를 통해서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텍스트들은 대부분 사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실천적 측면을 설명한다. 초기에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외부의 프로젝트들을 예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고유한 실천적 방법을 밝히는 데에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후 랜스케이프 어바니스트들의 제안에 따라 실현된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디자인적 측면의 방법론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웰러, 코너, 리드, 카스트로 모두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Weller, 2007; 2008; Corner, 2010; Reed, 2010; Castro *et al.*, 2013). 스펜서 역시 발전된 AA의 방법론을 프로젝트를 통해 소개한 바가 있다(Spencer, 2010). 하지만 이러한 방식 역시 실천적 방법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결과에 속하는 다수의 개별적인 프로젝트들의 디자인 전략이 존재한다고 해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라는 담론의 보편적인 실천적 방법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프로젝트의 방법론들을 종합할 틀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들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추상적 개념이나 포괄적 지향점만을 공유하는 개별적인 전략들의 열거에 불과하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을 대표하는 코너의 프로젝트들을 보더라도 Fresh Kills, High Line, Science City에서 일관된 실천적 방법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실천적 결과들을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결과로 묶어 주는 것은 프로젝트들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의 가족유사성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명확한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코너의 프로젝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외연의 대상이 광범위하게 확장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에서 공통된 원칙이나 방법론을 종합하여 도출하기란 불가능하며, 모더니즘이나 뉴 어바니즘처럼 새로운 현상의 형식으로 실천의 방법론을 새로이 정리하여 제시하기에는 이미 지금까지의 실천적 사례들에 근거한 이론적 체계를 부정해야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실천적 방법의 부재 역시 현재의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구도에서 새로운 이론적, 실천적 제안을 통해서 극복될 수 없는 이론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IV. 결론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많은 주목을 받아온 성과만큼이나 다양한 문제점들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랜스

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구도에서 부정적인 영향만을 준 것은 아니다. 문제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이론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더욱 풍부한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지금까지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 중 상당수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담론이 전개되면서 해결책을 찾았으며, 아직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어도 충분히 담론의 틀 안에서 향후 해결 가능한 문제들도 많다. 반면, 이론적 개념의 모호함, 다수의 경계 사례로 인해 발생하는 정체성의 혼란, 명확한 실천적 방법의 부재와 같이 현재의 이론적 구도에서 연구나 실천의 성과를 통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특정한 텍스트 상의 오류나 잘못된 실천적 결과로 인해 발생한다기보다는 담론의 내적 요소들의 관계를 설정하며 담론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해 제기된 특정 문제들은 이론의 내용적 모순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담론이 발전해온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적 상황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론의 구조적인 한계와 모순을 드러낸다.

이론의 구조적인 문제들은 수정이 불가능했던 오류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남겨진 문제였다는 관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약점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강점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개념적 모호함으로 인해 명확한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다양한 서로 다른 담론들의 주장을 성공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데 성공한다. 또한 경계사례의 문제는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했으나, 한편으로는 여러 사례를 이론의 내부로 포섭함으로써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움직임을 빠르게 확장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정된 실천적 방법의 부재는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미국과 유럽의 맥락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의 여러 도시적 맥락 속에 적용될 수 있었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전망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비판에 대한 고찰에 추가로 본 연구가 다루지 못했던 외재적 비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실천적 이론의 의의는 이론적 내용과 구조의 완결성에서만 찾을 수 없다. 이론에 바탕을 둔 실천의 결과들이 야기한 효과들이 검증되지 않는 한 실천적 이론에 대한 평가는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 이후의 발전된 담론에 대한 해석 역시 불완전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효과와 관련된 외재적 비판에 대한 연구를 향후의 과제로 남긴다.

주 1.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과학적 방법론을 갖춘 학문적 이론 체계라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의 절차에 따르지 않더라

도 일반적으로 건축, 도시, 조경의 특정한 실천적 변화를 목표로 한 주장이 일련의 텍스트로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영향력 있는 사조로서의 성격을 질 때 건축, 도시, 조경의 분야에서는 이를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한 이론과는 다른 실천적 이론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특히 건축, 도시, 조경의 이론은 과학적 방법론을 따르기 보다는 실천에 야기된 주장 혹은 실천적 결과를 통해서 이론적 담론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더니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이 전통적 과학으로서의 연구 방식을 따르지 않은 이론적 주장과 실천적 사조의 경우라도 이들이 제시하는 이론적 중요성과 함의를 무시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학술적인 의미에서 이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나 뉴 어바니즘 논의할 때 실천과 이론적 내용을 포괄하여 담론으로 지칭을 하며 담론 내에서 이론적 내용만을 언급할 때는 이론으로 지칭을 하도록 한다.

- 주 2. 아오노 히데요시(靑野秀吉)는 문학 비평을 내재적 비평과 외재적 비평으로 구분하였다(Kim, 1985). 내재적 비평이란 문학 작품을 독립된 개체로 존재한다고 보며 일체의 외적 요소를 거부하고 작품의 언어, 기교, 조직, 형식, 수법 등에 초점을 맞추는 비평을 의미한다. 내재적 비평은 형식주의 비평, 구조주의 비평을 포함하며 웰렉(Rene Wellek)에 의해 개념이 정리된다(Wellek, 1963). 아오노는 내재적 비평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외재적 비평의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는 문학 작품을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작품의 형식 외에 존재하는 사회적 의식과 체계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 비평이다(Kim, 1985).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비판적 견해를 내재적 비판과 외재적 비판으로 구분한 관점은 아오노의 비평 형식에서 개념을 빌려 오기는 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재적 비판과 외재적 비판이 아오노의 내재적 비평과 외재적 비평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내재적 비판은 내재적 비평이 작품 자체에의 조건에 국한하여 작품을 비평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론의 개념, 방향, 구조 등 이론의 내적 구성 요소와 요소 사이의 관계, 즉 체계에 대한 비판을 의미한다.
- 주 3. 일반적으로 '모호성'은 세 가지 의미로 규정된다. 첫째는 '내포적 모호성'이며, 둘째는 '외연적 모호성'이다(Carnap, 1955). 셋째는 '맥락적 모호성'이다(Carney and Scheer, 1980:265). 이중 맥락적 모호성은 한 개념이 여러 개의 내포를 가져 다중적인 의미를 지닐 때 개념에서 발생하는 '사전적 애매함(lexical ambiguousness)'과 특정 맥락에서 개념이 여러 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 발생하는 '맥락적 애매함(contextual ambiguousness)'로 다시 나뉜다(Carney and Scheer, 1980:266). 사전적 애매함과 맥락적 애매함은 개념적으로 분리되지는 않는다. 맥락적 애매함이 발생할 때 그 개념은 동시에 사전적으로 애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념의 사용에서 있어 사전적으로 애매한 개념이 항상 맥락적으로 애매하지는 않다. 서로 다른 유형의 모호함은 중복하여 나타날 수 있다. 즉, 내포적으로 모호하면서 맥락적으로도 모호할 수 있다. 따라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에서 발생하는 모호함의 경우 역시 내포적으로 모호하면서 사전적으로 애매할 수도 있다.
- 주 4. 예를 들어 데리다(Jacques Derrida)가 일상 언어의 차이(différence)와 구분되는 차연(différance)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경우는 전자에 해당되며, 푸코가 「지식의 고고학」에 논의하는 담론(discours)은 신조어는 아니지만 일상 언어의 담화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재정의된 개념으로 후자에 해당된다(Foucault, 1982).
- 주 5. 강연주, 김정화, 배정환은 다양한 문헌들에서 나타나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을 아홉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강효정과 최재필은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아홉 가지 개념들을 정리한 바가 있다(Kang *et al.*, 2008; Kang and Choi, 2011). 김영민과 정옥주는 이러한 다양한 개념들이 실제로는 코너가 제시한 개념에서 직접 도출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Kim and Jeong, 2014).
- 주 6. 코너와 월드하임은 기존 조경의 실천을 비판하면서, 19세기 말 움스테드가 제시한 미국의 근대적 조경에서부터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1990년대 중반 미국의 조경까지를 기존의 조경으로 규정한다(Waldheim, 2002:6).

References

1. Andersson, T.(2010) Landscape urbanism versus landscape design. In *Topos* (71): 80-83.
2. Baird, G. and C. Jencks(1966) *Meaning in Architecture*. London: Barrie & Jenkins.
3. Brody, J.(2013) Talk of urbanism. In A. Duany, and E. Talen eds,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 Gabriola Island: New Society Publishers, pp. 231-245.
4. Carnap, R.(1995) Meaning and synonymy in natural languages. *Philosophical Studies: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Philosophy in the Analytic Tradition* 6(3): 33-47.
5. Carney, J. D. and R. K. Scheer(1980) *Fundamental of logic*. Jun, Y. trans.(2007) *Fundamental of Logic*. Seoul: Gandi Seowon.
6. Castro, E., J. A. Ramirez, and E. Rico(2013) The grounds of a renewed practice. *Architectural Design* 83(4): 78-85.
7. Cho, S.(2010) Practical strategies for urban regeneration through an application of landscape urbanism.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8(2): 109-118.
조세환(2010)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 전략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8(2): 109-118.
8. Corner, J.(1991) A discourse on theory II: Three tyrannies of contemporary theory and alternative hermeneutics. *Landscape Journal* 10(2): 115-133.
9. Corner, J.(1997) Ecology and landscape as agents of creativity. In Thompson, G. and S. Fredrick eds., *Ecological Design and Planning*.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pp. 81-107.
10. Corner, J.(1999) The agency of mapping: Speculation, critique and invention. In D. Cosgrove, eds, *Mappings*. New York: Reaktion, pp. 213-300.
11. Corner, J.(2003) Landscape urbanism. In M. Mostafavi, and C. Najle eds, *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 London: AA Publications, pp. 58-63.
12. Corner, J.(2010) Landscape urbanism in the field. In *Topos* (71): 25-29.
13. Corner, J.(2006) *Terra fluxus*. In C. Waldheim, ed. *Landscape Urbanism Reader*. Kim, Y. trans.(2007) *Landscape Urbanism*. Paju: Jokyoung, pp. 23-37.
14. Czerniak, J.(2006) Looking back at landscape urbanism: Speculations on site. In Waldheim, C. ed. (2006) *Landscape urbanism reader*. Kim, Y. trans.(2007) *Landscape Urbanism*. Paju: Jokyoung, pp. 120-141.
15. De Meulder, B. and K. Shannon(2010) Traditions of landscape urbanism. In *Topos* (71): 62-67.
16. Deleuze, G.(1968) *Différence et Répétition*. Kim, S. trans.(2004) *Différence and Repetition*. Seoul: Mineumsa.
17. Doherty, G.(2010) How green is landscape urbanism?. In *Topos* (71): 36-39.
18. Donaldieu, P.(2006) Landscape urbanism in Europe: From Brwonfields to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1(2): 36-45.
19. Drake, S.(2010) Term, definition, identity: Regenerating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era of landscape urbanism. In *Topos* (71): 50-55.
20. Duany, A.(2013) A general theory of ecological urbanism. In A. Duany, and E. Talen eds,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 Gabriola Island: New Society Publishers, pp. 115-124.
21. Duany, A. and E. Talen(2013) Looking backward: Notes on cultural episode. In A. Duany, and E. Talen eds,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 Gabriola Island: New Society Publishers, pp. 1-16.
22. Eco, U.(1973) *La struttura assente*. Cantarell, F. S. trans.(2011) *The Absent Structure*. Random House Mondadori.
23. Foucault, M.(1982) *Archaeology of Knowledge*. New York: Vintage.
24. Geldsetzer, L.(1987) *Logik*. Moon, S. trans.(2002) *Logics*. Daegu: Gae-myong Univ. Press.
25. Gray, C.(2007) Turning field: Contradictions in landscape urbanism. In *Kerb 15: Landscape Urbanism*, Melbourne, McLaren Press, pp. 94-107.
26. Hill, K. and L. Larsen(2013) Adaptive urbanism. In A. Duany, and E. Talen eds,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 Gabriola Island: New Society Publishers, pp. 215-230.
27. Jencks, C.(1984)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New York: Rizzoli.
28. Jeong, W. and J. Corner(2005) Fresh kills park design, Staten Island.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3(1): 93-108.
정옥주, 제임스 코너(2005) 프레스 키스 공원 조경설계. *한국조경학회지* 33(1): 93-108.
29. Kang, H. and J. Choi(2011) A study on the main concepts of landscape urbanism.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7(8): 225-232.
강효정, 최재필(2011)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 개념에 대한 연구. *대학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7(8): 225-232.
30. Kang, H.(2013) A study on landscape urbanism based on Korean cases. *Journal of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14(4): 29-41.
강효정(2013) 한국적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4): 29-41.
31. Kang, Y., J. Kim and J. Pae(2008) Design strategies for urban parks as urban infrastructure-An analysis of the landscape design competition for the Incheon Cheongna district, Korea.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6(5): 42-54.
강연주, 김정화, 배정환(2008) 인천청라지구 조경설계공모를 통해 본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의 설계전략. *한국조경학회지* 36(5): 42-54.
32. Kelbaugh, D.(2013) Landscape urbanism, new urbanism and the environmental paradox of cities. In A. Duany, and E. Talen eds,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 Gabriola Island: Gabriola Island: New Society Publishers, pp. 57-86.
33. Kim, A., M. Koh and H. Oh(2006) Re-reading Chuncheon G5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from a viewpoint of landscape urbanism.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4(3): 120-138.
김아연, 고미진, 오형석(2006)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관점으로 본 춘천 G5 국제설계경기 출품작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4(3): 120-138.
34. Kim, M.(2009) An analysis of the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 through practical issues of landscape urbanism.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Spatial Structure* 9(3): 83-92.
김민경(2009)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주제에 의한 건축 도시 공간 분석. *한국공간구조학회지* 9(3): 83-92.
35. Kim, Y.(1985) *Literary Criticism Terminology Dictionary*. Seoul: Tam-gudang.
김용직(1985) *문예비평용어사전*. 탐구당.
36. Kim, Y.(2014) Urban design concepts and strategies in landscape urbanism. *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15(4): 204-221.
김영민(2014)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도시설계안에서 나타나는 개념과 전략. *도시설계* 15(4): 204-221.
37. Kim, Y. and W. Jeong(2014) Development of landscape urbanism in practic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2(1): 1-17.
김영민, 정옥주(2014)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전개 양상. *한국조경학회지* 42(1): 1-17.
38. Kunstler, J. H.(2013) The Zombies of Gund Hall Go Forth and Eat America's Brains. In A. Duany, and E. Talen eds,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 Gabriola Island: New Society Publishers, pp. 125-140.
39. Lee, Y. and W. Yoo(2010) Design strategies of high-rise mixed use complex through a viewpoint of landscape urbanism - Focused on projects of Jerde partnership.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6(2): 119-128.

- 이영미, 유우상(2010)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점을 통해 본 입체 복합시설의 설계 전략: 저드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학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6(2): 119-128.
40. McCloskey, K.(2005) Without end: Mat, holes, and the promise of landscape urbanism, In Kelbaugh, D, and K, McCullough(2008) Writing Urbanism, New York: Routledge, pp. 115-119.
41. Mallgrave, F. H. and D. J. Goodman(2006) An 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Theory: 1968 to the Present, Hoboken: Wiley-Blackwell.
42. Martin, Claire(2007) An interview with Moshen Mostafavi, In Miller, Andy ed, Kerb 15: Landscape Urbanism, Melbourne: McLaren Press, pp. 38-41.
43. Mehaffy, M.(2013) Art vitiating life, In A. Duany, and E. Talen eds,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 Gabriola Island: New Society Publishers, pp. 187-198.
44. Meyer, E.(1997) Expanded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Thompos, G, and F. Steiner eds, Ecological Design and Planning, New York: Wiley, pp. 45-76.
45. Morenas, L.(2013) A critique of the high line: Landscape urbanism and the global south, In A. Duany, and E. Talen eds,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 Gabriola Island: New Society Publishers, pp. 293-304.
46. Mossop, E.(2006) Landscape of infrastructure, In Waldheim, C, ed, (2006) Landscape Urbanism Reader, Kim, Y, trans,(2007) Landscape Urbanism, Paju: Jokyoung, pp. 141-157.
47. Mostafavi, M. and C. Najle eds.(2003) 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 London: AA Publications.
48. Murrain, P.(2013) Landscape urbanism: Supplement or substitute?, In A. Duany, and E. Talen eds,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 Gabriola Island: New Society Publishers, pp. 293-304.
49. Norberg-Schulz, C.(1963) Intentions in Architecture, Cambridge: The MIT Press.
50. Pae, J.(2004) Theory and Critical Practice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Jokyoung.
- 배정환(2004)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조경.
51. Pae, J.(2012) Landscape urbanism and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Environment and Landscape Architecture (258): 102-107.
- 배정환(2012)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한국 조경, 환경과 조경 (258): 102-107.
52. Palmboom, F.(2010) Landscape urbanism: Conflation or coalition?. In Topos (71): 43-49.
53. Payton, N. I.(2013) The Metropolis versus the city, In A. Duany, and E. Talen eds,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 Gabriola Island: New Society Publishers, pp. 87-104.
54. Pollak L.(2006) Constructed ground: Question of scale, In C. Waldheim, ed,(2006) Landscape Urbanism Reader, Kim, Y, trans,(2007) Landscape Urbanism, Paju: Jokyoung, pp. 142-159.
55. Potteiger, M. and J. Purinton(1998) Landscape Narratives: Design Practices for Telling Stories, New York: Wiley.
56. Reed, C.(2010) Landscape urbanism in practice, In Topos (71): 90-107.
57. Rios, M.(2013) Marginality and the prospect for urbanism in the post-ecological city, In A. Duany, and E. Talen eds,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 Gabriola Island: New Society Publishers, pp. 199-214.
58. Rosanna, K.(2000) Theories of Vaguenes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59. Salmon, W. C.(1982) Logics, Kwak, K, trans,(2004) Logics, Seoul: Jeon-youngsa.
60. Shane, G.(2003) The emergence of landscape urbanism, Harvard Design Magazine (19): 1-8.
61. Shane, G.(2006) The emergence of landscape urbanism, In C. Waldheim, ed,(2006) Landscape Urbanism Reader, Kim, Y, trans,(2007) Landscape Urbanism, Paju: Jokyoung, pp. 61-77.
62. Shannon, K. and S. Manawadu(2007) Indigenous landscape urbanism: Sri Lanka's reservoir and tank system,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2(2): 6-17.
63. Solomon, D.(2013) Why dogs should not eat dogs, In A. Duany, and E. Talen eds,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 Gabriola Island: New Society Publishers, pp. 159-170.
64. Spencer, D.(2010) Landscape urbanism at the architectural association, In Topos (71): 64-66.
65. Steiner, F. and Almy, D.(2010) Conservation as catalyst: Lady bird's urbanism, In Topos (71): 74-79.
66. Talen, E.(2013) The social apathy of landscape urbanism, In A. Duany, and E. Talen eds,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 Gabriola Island: New Society Publishers, pp. 105-114.
67. Thompson, I. H.(2012) Ten tenants and six questions for landscape urbanism, Landscape Research 37(1): 7-26.
68. Ulan, A.(2009) Back on track, Landscape Architecture 99(10): 90-109.
69. Waldheim, C.(2002) Landscape urbanism: A genealogy, In Praxis 4: 10-17.
70. Waldheim, C.(2006) Landscape as urbanism, In C. Waldheim, ed, (2006) Landscape Urbanism Reader, Kim, Y, trans(2007), Landscape Urbanism, Paju: Jokyoung, pp. 38-59.
71. Waldheim, C.(2007) Precedents for a North American landscape urbanism, In Almy, D, ed, Center 14: On Landscape Urbanism, Austin: the Center for American Architecture and Design, pp. 292-303.
72. Waldheim, C.(2009) The other '56, In Krieger, A, and William S. S, eds, Urban Desig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 229-236.
73. Waldheim, C.(2010) On landscape, ecology and other modifiers to urbanism, In Topos (71): 20-24.
74. Waldheim, C, ed,(2006) Landscape urbanism reader,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Review, Kim, Y, trans(2007), Landscape Urbanism, Paju: Jokyoung.
75. Wall, A.(1999) Programming the urban surface, In J. Corner ed, Recovering Landscape,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232-249.
76. Wellek, R.(1963) Concept of Criticis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77. Weller, R.(2006) An art of instrumentality: Thinking through landscape urbanism, In C. Waldheim, ed,(2006) Landscape Urbanism Reader, Kim, Y, trans,(2007) Landscape Urbanism, Paju: Jokyoung, pp. 78-99.
78. Weller, R.(2007) Global theory, local practice, In Miller, Andy ed, Kerb 15: Landscape Urbanism, Melbourne: McLaren Press, pp. 66-71.
79. Weller, R.(2008) Landscape (Sub)urbanism in theory and practice, Landscape Journal 27(2): 247-267.
80. Yoon, H.(2010) Landscape urbanism in special west chelsea district rezoning and high line open space redevelopment project,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8(1): 84-97.
- 윤희연(2010) 웨스트 첼시 개발과 하이라인의 역할에서 나타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성격, 한국조경학회지 38(1): 84-97.
81. Yu, K.(2010) Five traditions for landscape urbanism thinking, In Topos (71): 58-63.
82. Zoh, K.(2010) Perspective of Korean landscape urbanism: Dilemma and potential, Environment and Landscape Architecture (272): 150-157.
- 조경진(2010) 한국적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전망: 딜레마와 가능성, 환경과 조경 (272): 150-157.

Received : 3 March, 2015

Revised : 7 April, 2015 (1st)

Accepted : 7 April, 2015

3인익명 심사필